

<<내신 기출, 언어와 매체 미래엔-상편>>

◆차례◆

1. 언어와 매체의 본질

- (1) 언어와 국어 ----- 1쪽 (30문제)
- (2) 매체의 유형과 매체 언어 ----- 14쪽 (16문제)

2. 국어의 구조

- (1) 음운 ----- 21쪽 (145문제)
- (2) 단어 ----- 62쪽 (190문제)
- (3) 문장 ----- 115쪽 (42문제)
- (4) 담화 ----- 130쪽 (6문제)

3. 매체의 탐구와 활용

- (2) 매체의 수용과 생산 ----- 134쪽 (2문제)

4. 국어 자료의 탐구

- (1) 국어의 여러 가지 모습 ----- 137쪽 (37문제)

▶정답 -----150쪽

▶해설 -----153쪽

(버전: 2020.09.18.) 이전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문제를 풀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오류 정정을 확인!

문의 및 오류 신고: pt005pt (카톡 ID)

1-(1) 언어와 국어

■ 언어의 개념

- 언어(言語):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음성, 문자 등의 기호 체계
- 언어의 본질

자의성	언어의 소리와 뜻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임.
사회성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임.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리나 뜻이 변하기도 하고, 없던 말이 생기기도 함.
창조성	인간은 한정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 낼 수 있음.
규칙성	일정한 규칙에 맞게 언어를 사용해야 함.

■ 언어와 사고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함.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예	‘고운 말을 사용하면 마음도 고와진다.’라는 말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사람 중심의 사고가 반영된 ‘여기저기’, ‘국내외’ 등의 표현 •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 “밥.”(단어) → “밥 주세요.”(문장) → “배고픈 데 밥 주세요.”(상황을 더 자세히 표현)

■ 언어와 사회

-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감.
- 언어는 그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함.



사회적 특성이 언어에 반영된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함.: ‘부추’ → 정구지(경상, 전북, 충청), 졸(충청), 솔(경상, 전남), 분추(강원, 경북, 충북), 췌우리(제주), 엄지(함경) • 시대, 나이, 성별, 계층, 직업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함.
-------------------	--

■ 언어와 문화

-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정신, 곧 문화를 반영함.
- 언어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됨.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예	나라마다 지리적, 사회적, 인종적 특성 등에 따라 어휘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 우리말에는 친족어가 발달함. 이누이트족의 언어에는 눈이나 흰색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언어에는 모래와 관련된 어휘가 많음.
언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	문학 작품이나 역사적 자료와 같은 문화는 언어를 도구로 하여 다음 세대에 전승됨.

■ 국어의 특징

● 음운의 특징

- 예사소리(ㄱ, ㄷ, ㅂ), 된소리(ㄱ, ㄷ, ㅂ), 거센소리(ㅋ, ㅌ, ㅍ)가 서로 대립함.
→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같은 대부분의 서양 언어는 ‘g, k’, ‘d, t’, ‘b, p’처럼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대립함.
- 마찰음 ‘f, v, th’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음.
→ ‘free’는 ‘프리’, ‘violin’은 ‘바이올린’, ‘thrill’은 ‘스릴’로 적음.
- 음절의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함.
→ ‘spring’을 ‘스프링’으로 적음.

● 어휘의 특징

- 국어의 어휘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뉨.
-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의성어와 의태어, 색채어가 발달함.
→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영어의 ‘aunt’ →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모, 고모
→ 의성어, 의태어: 졸졸/줄줄, 찰칵/철컱, 감감/깜깜/깜깜 등
→ 색채어: 영어의 ‘red’ → 붉다, 빨갳다, 빨갳다, 새빨갳다, 불그스름하다, 불그레하다, 불그죽죽하다 등

● 문법의 특징

- 국어의 문장은 대체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서로 나타남.
- 조사와 어미가 다양하게 발달함.
- 국어의 문장에서는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옴.
-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등 높임 표현이 발달함.

● 담화의 특징

- 주어, 목적어 등 문장의 주요 성분이 흔히 생략됨.
- 인간이 표현의 중심에 서기보다 상황이 우선적으로 드러남.
→ 국어에서는 “단추가 떨어졌다.”로 표현하고, 영어에서는 “I’ve lost a button.”으로 표현함.
- 공손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이 발달함.
→ “ 창문 좀 열어 주시겠습니까?”와 같은 간접 화행 표현, “내일은 못 갈 것 같아요.”와 같은 단정적이지 않은 표현 등

■ 세계 속의 한국어

●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

- 한국어는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임.(2016년 기준)
- 한국어 교육 기관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으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는 학교도 늘고 있음.
-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에 응시하는 지원자들도 해마다 늘고 있음.

●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

- 한국어를 소중히 여기고 잘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관계를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어(言語)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음성, 문자 등의 기호 체제를 말한다.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동물도 소리,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내용(의미)’과 ‘형식(말소리)’이 분리되어 서로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나)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한다. <중략>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기 때는 “밥.”처럼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말한다. 그러다가 좀 더 자라면 “밥 주세요.”처럼 문장으로 말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배고픈데 밥 주세요.”와 같이 상황을 더 자세히 표현한다. 이처럼 인간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고력도 함께 발달하게 되고, 또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다) 언어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발전하게 하는 수단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간다. 또한 그렇게 이루어 낸 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어는 그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게 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양상도 다르다. 언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추’는 지역에 따라 ‘정구지(경상, 전북, 충청), 졸(충청), 솔(경남, 전남), 분추(강원, 경북, 충북), 쉼우리(제주), 염지(함경)’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한편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시대, 나이, 성별, 계층, 직업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고 의학, 건축, 법률 등 각 직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말이 다른 것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예이다.

(라)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정신, 곧 문화를 반영한다. 나라마다 형제자매 사이를 나타내는 어휘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말은 성별과 순위·손아래뿐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성별도 구분하여 8개 이상의 어휘로 나타낸다. 영어는 성별만을 구분하여 2개의 어휘로 나타낸다. 말레이어는 구분 없이 1개의 어휘로만 나타낸다. 이는 남녀와 상하 관계를 더 뚜렷이 구분하여 격식을 차리는 우리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족의 언어에 눈을 구별하여 나타내는 어휘나 원색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다는

것, 사면이 바다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언어에 모래와 관련된 어휘가 많다는 것 또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언어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루어 내고 축적해 왔으며, 언어를 도구로 하여 이러한 문화적 산물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 왔다. 따라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문화를 배우는 것으로 이어지며, 언어 또한 그 자체로 문화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1. 밑글에 드러나는 언어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언어의 사회성 ② 언어의 역사성
- ③ 언어의 기호성 ④ 언어의 자의성
- ⑤ 언어의 창조성

광성고등학교 (서울)

2. 밑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 ① 언어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언어를 통해 세대를 유지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이룬다.
- ③ 계층적 차이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 ④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언어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 ⑤ 사회 양상의 차이에 따라 언어의 모습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3. 밑글과 관련하여 <보기> 기사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인 가구 시대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물론 영화에서도 1인 가구가 아주 많이 묘사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각종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혼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혼족’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혼밥족’,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혼행족’, 혼자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혼캠족’ 등의 신조어가 등장했다. 또,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을 ‘편도족’이라고 부르고, 햄버거 같은 즉석 음식점에서 배달이 가능한 지역을 ‘벽세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두 1인 가구 시대를 반영하는 신조어들이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라고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다. “최근 1인 가구의 급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고용 불안 및 경제 여건 악화’라는 답변이 60%로 가장 많았다. ‘개인주의의 심화’는 25%였다. 즉, 고용 불안 및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 <뉴스워치> 2016년 9월 29일 자 기사

- ① 언어와 문화가 무관하게 별개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② ‘혼족’, ‘혼밥족’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1인 가구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 ③ ‘1인 가구 시대’라는 사회적 현상이 언어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 ④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 ⑤ ‘1인 가구’ 현상이 사회·경제적 요인을 결정하고 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4.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특성을 나타내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랑’이라는 개념을 국어에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러브 (love)’, 일본어에서는 ‘아이[愛]’, 프랑스어에서는 ‘아무르(amour)’라고 한다. 만약 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라면 어느 언어에서나 ‘사랑’이라는 대상이 같은 소리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처럼 언어는 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특성을 지닌다.

- ① ‘뽕’은 포르투갈어의 ‘pão[팡]’를 차용한 외래어이다.
- ② ‘음악’을 ‘춤’이라고 부르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 ③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
- ④ 표준어로는 ‘감자’라고 부르는 식물을 제주도 방언에서는 ‘지실’이라고 부른다.
- ⑤ ‘지흥이는 지금 행복해.’라는 문장을 ‘지흥이는 행복 지금해’라고 말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어의 ‘라이스(rice)’는 꽤나 불친절한 단어이다. 때로는 ‘벼’, 때로는 ‘쌀’, 때로는 ‘밥’을 뜻한다.

갈무리해 놓은 낱알 중에 실한 놈을 잘 말려 겨울을 난 후 싹을 틔워 못자리에 붓는다. 적당한 길이만큼 자라면 모를 찢어 모내기를 한다. 애벌, 두벌, 세 벌의 김을 매며 잘 키우면 그것이 벼다. 가을이 되어 알곡이 누렇게 익고 이삭이 고개를 숙일 때쯤 베어 낱알을 떨어내면 그것도 벼다. 방앗간에서 왕겨를 벗겨 내면 현미가 되고 다시 몇 차례 등겨를 벗겨 내면 백미가 되는데 이것을 쌀이라 부른다. 쌀을 안쳐 불을 때다 뜸을 들이면 비로소 밥이 된다.

이처럼 우리말에서는 세세히 분화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저 라이스일 뿐이다. 삼시 세끼 밥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밥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다시 볼 일이다.

‘요리를 하다’와 마찬가지로 ‘밥을 하다’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밥을 짓다’가 제격이다. 음식은 그저 ‘만들다’라는 동사를 쓰면 되지만 밥만은 ‘만들다’를 쓰지 못하고 ‘짓다’를 쓴다. ‘짓다’는 집, 옷, 짚, 농사, 매듭, 이름, 죄 등을 목적으로 삼아 ‘만들다’보다는 좁은 영역에서 쓰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대상에 대해 쓴다. 밥도 ‘짓다’를 쓰니 밥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가늠할 수 있다. ‘뜸’은 밥을 지을 때만 활용하게 되는 독특한 조리법인데, 그 뜸이 일상에서 ‘뜸을 들이다’란 말로 쓰이고 있으니 이 역시 밥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이래저래 밥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진 말인지 확인할 수 있다.

①우리에게 밥은 그저 음식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음식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밥이 있어야 국과 찌개, 그리고 반찬이 의미가 있다. 밥이 밥상의 중심이기에 밥이 결국 음식 전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밥은 우리 삶의 원천이자 음식의 출발점이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5. 윗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벼의 낱알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밥이 될까?
- ② 영어의 ‘라이스(rice)’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 ③ 한국인과 서양인이 ‘밥’에 대해 갖는 인식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 ④ ‘라이스(rice)’에 해당하는 우리말의 가짓수가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 ⑤ 우리에게 ‘밥’이 삶의 원천으로 인식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광성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 ‘벼’, ‘밥’을 모두 ‘라이스(rice)’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서구에는 밥에 대한 관념이 없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밥 먹자’라고 할 때에 ‘밥’은 단순한 ‘라이스(rice)’의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는군.
- ③ ‘밥’을 ‘짓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인에게 ‘밥’이 매우 중요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영어의 ‘라이스(rice)’와 달리 다양한 어휘로 표현되는 우리 말 ‘밥’에는 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드러나는군.
- ⑤ 대상에 대한 애착이 그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분화된 표현을 만들어 낸 것이군.

광성고등학교 (서울)

7.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가 차려 주시는 밥이 그리워.
- ② 내일 밥 약속은 참석하기 어렵겠어.
- ③ 밥 지을 때 뜸들이는 걸 깜박했어.
- ④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어.
- ⑤ 언제 밥이나 한 끼 같이 하시지요.

대광고등학교 (서울)

8.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필’을 개인 마음대로 ‘흰 연필’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없다.
- ② ‘집에 오다’는 바른 표현이지만, ‘집에 먹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 ③ 과거에 사용하던 ‘뫼’라는 고유어는 ‘산(山)’이라는 한자어로 바뀌었다.
- ④ 한국어에서는 ‘사람’이라 일컫는 대상을 영어에서는 ‘man’이라고 한다.
- ⑤ ‘벼에서 껍질을 벗겨 낸 알맹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쌀’이라는 문자와 [쌀]이라는 음성을 사용한다.

대광고등학교 (서울)

9. <보기>를 통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엄마, 우유.”라고 말하던 아이가 차츰 말이 늘어 “엄마, 우유 주세요!”라고 말한다.

(나) 남자가 “나는 내일부터 너를 사랑했어.”라고 말하자 여자가 이해를 하지 못해 돌아갔다.

(다) “비가 오는데, 슈룹(우산)도 없이 가다니 참 어엿브네(가역네).”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 ① (가)는 기존의 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표현을 만든 경우이다.
- ② (나)는 언어로 표현할 때에는 일정한 체계와 규칙을 따라야 함을 보여 준다.
- ③ 모두가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혼자 ‘공책’이라 부르는 경우도 (나)의 예시로 볼 수 있다.
- ④ (다)는 언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 준다.
- ⑤ (다)에서 ‘어엿브네’는 의미가 변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言語)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음성, 문자 등의 기호 체계를 말한다.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동물도 소리,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내용(의미)’과 ‘형식(말소리)’이 분리되어 서로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력을 키우고, 사회를 이루어 생활하며,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볼 때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한다. ‘고운 말을 사용하면 마음도 고와진다.’라는 말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담긴 표현이고, ‘저기여기’나 ‘국외내’와 같은 표현보다 ‘여기저기’나 ‘국내외’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기 때는 “밥.”처럼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말한다. 그러다가 좀 더 자라면 “밥 주세요.”처럼 문장으로 말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배고

1-(2) 매체의 유형과 매체 언어

■ 매체의 개념

- 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혹은 경로
- ② 생각이나 정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 등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 의사소통 방식의 종류

면 대 면 소통	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과 시간에 존재하면서 음성이나 문자 언어, 몸짓과 표정 등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것
간접적 소통	공간과 시간이 분리되어 있는 개인들이 종이, 전신, 전파 등을 사용해 의미를 주고받는 것 예 편지, 전화
대량 전달 방식의 소통	인쇄 기술과 전자 기술의 발달에 의해 등장한 기술 매체를 통한 소통 예 책,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 매체의 유형과 특성

유형	특성	
음성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기 중심으로 억양, 어조, 몸짓, 표정 등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음. · 면 대 면 소통으로 다른 시·공간의 사람과는 소통이 어려움. 	
문자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의 기록, 축적, 보존이 가능함. ·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함. · 간접적 소통 방식 	
인쇄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대량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해짐. ·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시각적 이미지의 활용이 가능함. · 신문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 · 간접적 소통 방식 	
음성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소리, 음성의 전송이 가능함. · 대표적인 음성 매체: 라디오 · 간접적 소통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 · 문자 해독 능력과 상관없이 지식과 정보 수용이 가능함.
영상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의 전송이 가능함. · 대표적인 영상 매체: 텔레비전, 영화 · 간접적 소통 방식 	

■ 뉴미디어의 등장

- 뉴미디어의 개념: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롭게 발달한 디지털 형식의 매체

예) 스마트폰, 온라인 신문, 블로그, 누리 소통망[SNS] 등

- 뉴미디어의 특성

-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음.
- 여러 사람이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함.
→ 대량 전달 방식의 소통, 면 대 면 소통, 간접적 소통의 특성을 모두 지님.

- 뉴미디어의 영향

-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교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함.
- 전 인류가 물리적 한계를 넘어 관심사를 공유하고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됨.

■ 매체 언어의 개념과 특성

-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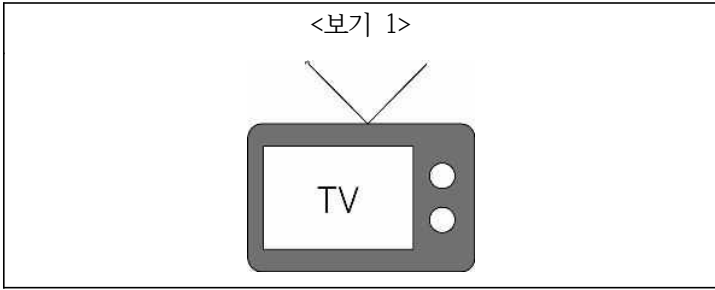
- ① 매체 언어의 개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 과거에는 음성이나 문자 중심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현재에는 음성과 문자는 물론이고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형성한다.
- ② 복합 양식성의 개념: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 양식이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하나의 매체에서 소리, 문자, 이미지, 영상, 음악 등의 여러 양식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오늘날 매체 언어는 여러 가지 언어 양식이 다양하게 결합되어 점점 더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풍부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 ① 현대의 매체인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각각의 매체 특성에 맞게 통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 ②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쌍방향적 특성을 결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예) 인터넷 방송 - 텔레비전 방송 등 기존의 매체와 유사한 방식의 의미 전달도 가능하고, 쌍방향적 특성을 결합하여 시청자가 방송에 참여할 수도 있다.
- ③ 최근의 매체 언어: 가상 현실 기술의 접목 등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금명여자고등학교 (부산)

1. <보기 2>는 <보기 1>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내용은 모두 고른 것은?



<보기 2>
 가. 정보의 전달과 수용이 쌍방향적이다.
 나. 제작과정이 복잡하여 정보 제공의 속도가 느리다.
 다. 동일한 정보를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라. 다양한 언어 양식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 ① 가, 나 ② 나, 다
- ③ 가, 다 ④ 나, 라
- ⑤ 다, 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체의 개념
 최초의 인류는 주로 음성으로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후 문자가 발명되면서 문자를 활용한 의사소통이 점차 활발해졌다. 오늘날에는 기술 발달에 힘입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으려면 이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길에서 만난 친구에게 “안녕?”이라는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는 음성이 필요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는 휴대 전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혹은 경로를 매체라고 한다. 즉, 매체는 사람들이 생각이나 정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 등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들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다.

매체의 유형과 특성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매체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서 시작하여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뉴미디어 등으로 발전해 왔다.

음성 언어에 의한 소통은 말하기를 중심으로 억양, 어조, 몸짓, 표정 등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소통 방식이다. 대체로 사람들 사이에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면 대 면 소통으로, 다른 시·공간에 있는 사람과는 소통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문자를 사용하면서 지식을 기록하고 축적하여 보존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음성 언어의 한계였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인쇄 기술의 발달로 책을 대량으로 출판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었고, 신문과 같은 새로운 인쇄 매체가 등장했다.

인쇄 매체는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사진, 그림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필자와 독자의 간접적 소통이 이루어진다.

전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매체가 등장했다.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와 텔레비전, 영화 등의 영상 매체가 그것이다. 음성 매체는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빠르지만 시각적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영상 매체는 음성 매체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에 문자와 이미지, 영상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제공할 수 있다.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면 대 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수단인 음성 언어와 확연히 다르다. 특히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는 문자해독 능력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수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 책이나 신문과 달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식과 정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쇄 매체보다 큰 영향력을 지닌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과 이들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형식의 매체를 뉴미디어라고 부른다. 스마트폰, 온라인 신문, 블로그, 누리 소통망(SNS) 등이 대표적인 뉴미디어의 예에 해당한다. 뉴미디어는 기존 매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기존 매체들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된 형태로 구현되기도 한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뉴미디어는 여러 사람이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뉴미디어는 대량 전달 방식의 소통과 면 대 면 소통, 간접적 소통의 특성을 모두 지닌다.

뉴미디어의 등장은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교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대인고등학교 (인천)

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최초의 인류는 매체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 ② 친구와 주고받는 ‘안녕’이라는 인사도 매체 언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 ③ 음성 언어에 의한 소통은 면 대 면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문자를 사용하면서 음성 언어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인쇄 매체는 문자 언어 외에도 사진, 그림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활용하였다.

대인고등학교 (인천)

3. 윗글을 참고하여 다음 매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D영화란 3D 영상에 물리적인 움직임 등이 가미된 영화를 말한다. 영화의 영상에 입체적인 시각효과를 준 3D 영화에 비행, 이동 등 동적 움직임까지 가미해 공간적인 입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극장 안에 실제 비눗방울이 나온다는지, 영상 속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관객의 의자가 흔들린다는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에서 바람이 부는 등 실감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다.

- 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 ② 매체에 대한 해독 능력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수용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편이다.
- ③ 기존 매체들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된 형태로 구현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④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쇄 매체보다 큰 영향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 ⑤ 음성 매체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에 영상, 촉각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제공할 수 있다.

배재고등학교 (서울)

4. 인터넷과 이동통신 기기 등의 현대적 매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터넷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인터넷은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 ③ 현대의 매체 언어는 음성, 문자, 소리, 이미지, 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만든다.
- ④ 인터넷은 문서로 보관되던 기록들을 디지털 정보로 저장하여, 정보 유실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 ⑤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정보의 파급력이 확대되었으며,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정보의 확산 속도도 빨라졌다.

배재고등학교 (서울)

5. 매체별 정보전달 방식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책 : 정제된 내용을 편집하여 인쇄 과정을 거쳐 제작되므로 다른 매체에 비해 정보 제공의 속도가 느리다.
- ② 라디오 : 다른 일을 하면서도 청취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재난 시 비상 방송, 교통 정보 방송 등 특정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텔레비전 : 제공되는 정보에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다.
- ④ 신문 : 지면의 제약 때문에 책만큼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는 힘들지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다.
- ⑤ 이동 통신 기기 : 다른 매체에 비해 휴대가 간편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6. 다음 중 오늘날의 매체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에 심미적 가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 ②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 ③ 개인적 의사소통의 성격과 사회적 의사소통의 성격에 동시에 가져가기도 한다.
- ④ 개별 언어의 특성만을 이해하고 있어도 자료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데에 충분하다.
- ⑤ 복합 양식적인 경향을 가지며,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에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7. 다음의 각각은 어떤 매체의 정보 전달 방식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리키는 매체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 ① 다른 매체에 비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쉽다.
- ② 문자와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인쇄 매체이다.
- ③ 텔레비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가장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였다.
- ④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비교적 분량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시할 수 있다.
- ⑤ 정제된 내용을 편집하여 인쇄 과정을 거쳐 제작되므로 다른 매체에 비해 정보 제공의 속도가 느리다.

2-(1) 음운

■ 음운

● 음운의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분절 음운(자음, 모음)과 비분절 음운(소리의 길이, 억양)이 있다.

● 분절 음운

① 자음: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 자음의 분류 기준

조음 위치 (소리 나는 위치)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조음 방법 (소리 내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 목청의 울림 여부에 따라: 울림소리(비음, 유음), 안울림소리(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ㅅ		ㅈ	
	된소리	ㅃ	ㅆ		ㅊ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ㅊ		
	된소리			ㅈ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② 모음: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 단모음: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과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으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총 10개)가 있다.
‘ㅛ’와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단모음의 분류 기준

혀의 높낮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혀의 앞뒤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 모양	평순 모음, 원순 모음

·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

2-(1) 음운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꺠	ㅡ	ㅓ
중모음	꺡	꺢	꺣	꺤
저모음	꺦		꺧	

· 이중 모음: 발음하는 도중에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달라지는 모음으로,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ㅑ,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ㅟ, ㅠ’(총 11개)가 있다.

ㅣ [j] + 단모음	ㅑ, ㅕ, ㅛ, ㅝ, ㅟ, ㅠ, ㅡ
꺡/ㅓ [w] + 단모음	ㅜ, ㅠ, ㅡ, ㅞ

● 비분절 음운

① 소리의 길이: 동일한 자모로 이루어진 단어라도 소리의 길이가 달라지면 의미의 차이가 생겨나기도 한다. 긴소리는 단어의 첫음절에 서만 나타나며, 본래 길게 발음되던 것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은 소리로 발음된다.

예) 눈: [눈]-눈[眼], 성:인(聖人)-성인(成人), 함박+눈: → 함박눈, 인사+말: → 인사말

② 억양: 음의 상대적인 높이를 변화시켜 문장의 뜻을 구별하기도 한다.

예) 의문문 - 지금 학교 가?(↗), 평서문 - 지금 학교 가.(↘), 명령문 - 지금 학교 가!(→)

■ 음운의 변동

● 음운의 변동: 한 음운이 다른 음운과 결합할 때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첨가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

● 교체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

- ㄱ, ㅋ → [기] 예 밖 → [박], 부엌 → [부억], 닭지 → [닥찌]
- ㄷ, ㅌ, ㅍ, ㅈ, ㅊ, ㅎ → [디] 예 낱, 낫, 낯, 낯 → [남], 있다 → [인따]
- ㅍ → [비] 예 무릎 → [무릅], 옆고 → [엍꼬]

· 모음 앞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대표음으로 바꾼 뒤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함. 예 꽃 + 위 → [꼐위] → 꼬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끝소리 그대로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함.(연음 현상) 예 꽃을 → [꼬츨]

② 비음화: 앞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 ㅁ’의 영향으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

예 곡물 → [공물], 걷는다 → [건는다], 밤물 → [밤물]

③ 유음화: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 ㄴ + ㄹ → [리] + [리] 예 권력 → [꺠력] • ㄹ + ㄴ → [리] + [리] 예 갈날 → [꺠랄]

④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서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예 굳이 → [꺠지], 같이 → [가치], 해돋이 → [해도지], 붙이다 → [부치다]

2-(1) 음운

⑤ 된소리되기: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앞에 오는 소리의 영향을 받아 각각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로 바뀌는 현상

유형	예
받침 ‘ㄱ, ㄷ, ㅂ’ 뒤	역도 → [역또], 달지 → [달찌], 입고 → [입꼬]
용언 어간의 끝소리 ‘ㄴ, ㄹ’ 뒤	신지 → [신찌], 감다 → [감따]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	갈등 → [갈똥], 발전 → [발쩐]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할 것을 → [할꺼술], 만날 사람 → [만날싸람]

● 탈락

① 자음군 단순화: 음절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

- ‘ㄱㅅ’, ‘ㄴㅅ’, ‘ㄹㅅ, ㄹㅈ, ㄹㅉ’, ‘ㅃㅅ’ → [ㄱ], [ㄴ], [ㄹ], [ㅃ] **예** 낫 → [녁], 앉지 → [안찌]
- ‘ㄹㄹ’, ‘ㄹㄷ’, ‘ㄹㅈ’ → [ㄱ], [ㄷ], [ㅈ] **예** 흙 → [흑], 삶 → [삼]

② ‘ㄹ’ 탈락: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끝소리 ‘ㄹ’이 탈락하는 현상

예 놀- + -니 → [노니], 울- + -는 → [우는]

③ ‘ㅎ’ 탈락: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좋은[조은], 쌓이다[싸이다]

④ ‘-’ 탈락: 용언이 활용할 때 ‘-’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담그- + -아도 → [담가도], 쓰- + -어라 → [써라]

● 첨가

‘ㄴ’ 첨가: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올 때, ‘ㄴ’이 첨가되는 현상

예 맨입[맨닙], 솜이불[솜니불], 두통액[두통낙]

● 축약

거센소리되기: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ㅎ’ 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

예 놓끄[노꼬], 잡히대[자피대], 젓히대[저치대]

광성고등학교 (서울)

1. <보기>의 ㉠~㉣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 탈락은 둘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음절이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아래 단어들을 통해 탈락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 달으니 → [다으니], 달아 → [다아]

㉡ 말+소 → 마소[마소]

㉢ 따르(다)- + -아 → [따라]

㉣ 열(다)- + -니 → [여니]

㉤ 담그- + -아도 → [담가도]

- ① ㉠은 ‘ㅎ’을 끝소리로 가지는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앞에서 ‘ㅎ’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 ② ㉡의 ‘마소’는 ‘말’과 ‘소’가 만나 파생어가 되는 과정에서 ‘ㄹ’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 ㉢은 모음 ‘-’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뒤에 ‘아’로 시작되는 어미가 붙어서 ‘-’가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 ㉣은 ‘열다’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조음 방법을 가진 두 음운이 만나 ‘ㄹ’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 ㉤은 ‘담그다’가 활용할 때, 용언 어간의 끝소리와 어미의 첫소리가 동일하여 ‘-’가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2. 밑줄 친 단어를 발음했을 때 일어나는 동화 현상의 방향이 다른 단어는?

- ① ‘거짓말을 하다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에서 ‘곤란’
- ② ‘여기는 강릉 아이스하키장입니다.’ 에서 ‘강릉’
- ③ ‘이제 기름 난로는 잘 쓰지 않아.’에서 ‘난로’
- ④ ‘경찰이 범인을 잘 잡는다.’ 에서 ‘잡는다’
- ⑤ ‘쌘니다 천리마 마트’에서 ‘천리마’

광성고등학교 (서울)

3. <보기1>은 표준 발음법과 관련된 설명이고, <보기2>는 이를 보고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이다. <보기2>에서 올바르게 탐구한 학생을 모두 고르면?

<보기1>

제4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ㅛ,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제5항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쯤, 처’는 [저, 쯤, 처]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ㅣ]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오아→와, 지어→져, 지어→져, 치어→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제11항 겹받침 ‘ㄹ, ㄴ,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보기2>

- 진주 : ‘길에서 금괴를 주웠다.’의 ‘금괴’는 4항을 참고할 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겠군.
- 범수 : ‘그러다 크게 다쳐’의 ‘다쳐’는 5항의 ‘다만 1’ 규정에 따라 [다쳐]로 발음해야 하는군.
- 은정 : 5항의 ‘다만 4’를 참고할 때, ‘교수님 강의의 내용’에서 ‘강의의’는 [강이에], [강이이], [강의에] 등으로 발음할 수 있군.
- 재훈 : 5항과 6항을 고려할 때, ‘밥을 지어’의 ‘지어’는 [저]와 같이 장음으로 발음하겠군.
- 소민 : 11항의 ‘다만’을 참고 할 때, ‘하늘은 맑고 푸르다’에서 ‘맑고’는 [말꼬]로 발음하겠군.
- 효봉 : 11항 전체를 고려할 때, ‘침도’, ‘웁고’, ‘늉거나’를 발음할 때는 모두 겹받침 ‘ㄹ’이 탈락하겠군.

- ① 진주, 범수, 소민
- ② 범수, 재훈, 효봉
- ③ 진주, 범수, 재훈, 소민
- ④ 범수, 은정, 재훈, 효봉
- ⑤ 진주, 범수, 은정, 재훈, 소민

2-(1) 음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 분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입천 장소리	여린입천 장소리	목청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마찰음	예사소리					
	된소리					
파찰음	예사소리			㉠		
	된소리					
	거센소리					
㉡						
유음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4. ㉠에 해당하는 음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기 흐름이 발음기관에서 장애를 받는 소리이다.
- ② 혀의 뒷부분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 ③ 음절의 종성에 올 때 본래 음운으로 발음되는 소리이다.
- ④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 ⑤ 혀끝을 잇잇몸에 댄 채로 공기를 혀 양옆으로 흘러가게 하면서 내는 소리이다.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5. 밑줄 친 단어를 발음할 때 음운 교체 후에서 ㉢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 ① 식당 설령탕의 국물 맛이 아주 좋아.
- ② 벗나무가 벌써 이렇게 크게 자랐구나.
- ③ 이번에 찍은 사진에 앞니가 예쁘게 나왔구나.
- ④ 이동 수업 시간에는 출입문을 닫는 습관을 가지렴.
- ⑤ 일 년 동안 줄넘기를 꾸준히 하게 하면 체력이 좋아진다.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6. 모음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ㅝ', 'ㅜ'는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낮아 저모음에 속한다.
- ② 단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에 따라 나뉜다.
- ③ 'ㄱ'처럼 발음할 때처럼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모음을 이중 모음이라고 한다.
- ④ '니'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⑤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놓이는 모음을 후설 모음이라고 하는데 'ㅜ'가 이에 해당한다.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7.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단모음이 모두 쓰인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소리 낼 때 혀의 높이가 중간이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놓이며 입술 모양을 둥글게 하고 소리 내는 모음이다.

2) 소리 낼 때 혀의 높이가 높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놓이며 입술 모양을 둥글게 하지 않고 소리 내는 모음이다.

- ① 꽃게 ② 우애
- ③ 기호 ④ 발전소
- ⑤ 외출복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8. 밑줄 친 부분 중 음운의 탈락 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어제 핀 꽃이 매우 빨갈다.
- ② 영화관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을 봐.
- ③ 이제 너희들도 2년이 지나면 성인이 돼.
- ④ 교실에 들어가서 책상 사이의 간격을 좁히자.
- ⑤ 애들아, 가끔씩은 부모님께 안부 편지를 써라.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9. 다음 대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손님은 'ㅸ'과 'ㅻ'을 다른 음운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② 손님은 '짜다'와 '많다'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
- ③ 직원은 손님이 말한 단어를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로 인식하고 있다.
- ④ 손님은 직원이 말한 '차다'의 활용형인 '차가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손님은 직원과 달리 예사소리와 된소리를 구분하는 음운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10. 밑줄 친 단어의 표준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벌써 한여름[한녀름]이 지나갔네.
- ② 식탁 위에 있는 물약[물략] 좀 가져오렴.
- ③ 추워지니까 흙이불[흔니불]을 정리해야겠다.
- ④ 주말 동안에 결막염[결마염] 치료를 받아야겠어.
- ⑤ 가을이 되니 가랑잎[가랑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11. <보기>를 참고할 때 구개음화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보기>

- 구개음화의 조건
- 조건1 : [ㄷ], [ㄷ]은 앞 형태소의 끝소리여야 한다.
- 조건2 : [ㄷ], [ㄷ]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ㅇ'의 앞에 와야 한다.
- 조건3 : 모음 'ㅣ'나 반모음 'ㅇ'가 형식 형태소의 첫소리여야 한다.

- ① 굳이 ② 만이
- ③ 끝이 ④ 발일
- ⑤ 달히다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12. 다음의 ㉠~㉣의 단계별 활동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동녘, 산, 옷, 꽃, 말, 점, 앞, 공

- (1) 발음할 때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자. ㉠
- (2) 음절 끝의 자음이 안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지 알아 보자. ㉡
- (3)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떤 자음으로 변하는지 정리해 보자. ㉢
- (4) (3)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단어들을 몇 가지 더 찾아보자. ㉣
- (5) 이상의 활동을 바탕으로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목록을 정리해 보자. ㉤

- ① ㉠ :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산, 옷, 말, 점, 공'이다.
- ② ㉡ : 음절 끝의 자음이 예사소리일 때에는 바뀌지 않는다.
- ③ ㉢ :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뀐다.
- ④ ㉣ : '각도'와 '끝'을 음운 변동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 ⑤ ㉤ : 음절 끝에서는 'ㄱ, ㄴ, ㄷ, ㄹ, ㅂ, ㅇ'만 발음 된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13. <보기>는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과 관련한 조항이다. 이를 보고, ㉠~㉣을 각 조항에 따라 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1-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1-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2-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2-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두 음절로 된 한자어

㉠ 나룻배	㉡ 횡수	㉢ 제삿날	㉣ 장맛비
㉤ 잇몸	㉥ 훗일	㉦ 곳간	㉧ 깻잎
㉨ 나뭇잎	㉩ 콧날	㉪ 튀김	㉫ 컵병

1-1	2-1	3
①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⑤ ㉠, ㉢	㉤	㉡, ㉦, ㉧

광성고등학교 (서울)

14. <보기1>~<보기3>을 참고하여 조건에 맞게 답안을 서술하시오.

<보기1>

만형 → [마텟]

('ㅎ' 축약)

<보기2>

꽃잎 → [꼇읷] → [㉠] → [㉡]

(㉢) (㉣) (㉤)

<보기3>

앞마당 흙이불 앞마당 샅일 맨입 부엌일

2-(2) 단어

■ 품사의 분류와 활용

● 품사: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를 지어 놓은 것

● 품사의 분류

분류 기준	형태	기능	의미
단어	불변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가변어	독립언	감탄사
		관계언	조사
			서술격 조사
용언		동사	
		형용사	

● 품사의 종류와 특성

① 체언: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이는 말

	의미	종류	정의	예
명사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보통 명사	일반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말	사과, 하늘, 책
		고유 명사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	부산, 철수
		자립 명사	혼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학교, 사람
		의존 명사	앞에 관형어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말	것, 따름, 뿐, 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	지시 대명사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말	이것, 여기
		인칭 대명사	사람을 나타내는 말	나, 너, 우리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양수사	수량을 나타내는 말	하나, 둘
		서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말	첫째, 둘째

② 용언: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말

	의미	종류	정의	예
동사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자동사	동작과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말	걷다, 가다, 살다
		타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말	먹다, 잡다, 구하다
형용사	사물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말	성상 형용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아름답다, 푸르다
		지시 형용사	성질이나 상태를 지시하는 말	이러하다, 그러하다

2-(2) 단어

- 용언의 활용: 용언이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화하는 것
- 어간과 어미

어간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예 읽-
어미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 부분 예 -고, -으면, -는다, -으니

-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기본 형태를 지키는 것 예 읽다 - 읽고, 읽어, 읽으니
불규칙 활용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것 예 돕다 - 돕고, 도와, 도우니

- 보조 용언: 혼자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말

보조 동사	본동사와 연결되어 그 풀이를 보조하는 동사 예 적어 두다
보조 형용사	본용언과 연결되어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 예 먹고 싶다

③ 수식언: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말

	의미	종류	정의	예
관형사	체언 앞에 놓여 체언을 꾸며 주는 말	성상 관형사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새, 흰
		지시 관형사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	이, 그, 저
		수 관형사	수량이나 순서 등 수 개념을 나타내는 말	한, 두, 세
부사	용언이나, 관형사, 부사, 문장 등을 꾸며 주는 말	성분 부사	문장의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말	매우, 못, 아니/안
		문장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말	다행히, 과연, 그러나

2-(2) 단어

④ 관계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해 주는 말

	종류	정의	예
조사	격 조사	문장 속에서 어떤 체언에 특정한 자격을 부여해 주는 조사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관형격 조사: 의 부사격 조사: 에게, 에, 로 보격 조사: 이/가 호격 조사: 아/야 서술격 조사: 이다
	접속 조사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	와/과, (이)랑, 하고, (이)나, (에)다, (이)며
	보조사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하여 주는 조사	만, 도, 조차, 은/는, 까지, 라도, 나마, 밖에, 치고, 커녕, 마다, 부터 등

⑤ 독립언: 문장 속의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말

· 감탄사: 놀람, 느낌, 부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말 [예] 예 아, 여보세요, 네

■ 단어의 짜임

● 단어와 형태소

① 단어: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단어로 인정한다.

②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 형태소의 분류 방법

기준	종류	개념	예
자립성 여부에 따라	자립 형태소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	하늘, 노래, 나무
	의존 형태소	문장에서 다른 형태소와 함께 연결되어야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이, 맑-, -다
의미에 따라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	하늘, 맑-
	형식 형태소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진 형태소	에게, -었-, -다

· 어근과 접사

어근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가운데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예] 풋사과, 부채질
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주변 부분 예 풋사과, 부채질 홀로 쓰이지 못하고 어근과 결합하여 쓰임.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제한적임. [예] 한겨울, 한낮, *한아침, *한새벽

2-(2) 단어

● 단어의 형성 방식

① 단어의 종류

단일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예 하늘, 땅, 밥
복합어	둘 이상의 어근이나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 • 합성어: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단어 예 꽃나무(꽃+나무), 높푸르다(높(다)+푸르(다)) • 파생어: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 예 덧버선(덧-+버선), 부채질(부채+-질)

② 합성어의 유형

통사적 합성어	어근과 어근의 결합 방식이 우리말의 어순이나 단어 배열 방식과 일치하는 합성어	명사+명사	돌다리, 이슬비, 집안
		관형사+명사	새해, 첫사랑
		주어+서술어	힘들다, 철들다, 낮설다
		목적어+서술어	본받다, 힘쓰다
		부사어+서술어	앞서다, 가로놓이다
비통사적 합성어	어근과 어근의 결합 방식이 우리말의 어순이나 단어 배열 방식에 어긋나는 합성어	용언의 어간+연결 어미+용언	돌아가다, 찾아보다
		용언의 어간+명사	늦잠, 덮밥
		부사+명사	부슬비, 척척박사
		용언의 어간+용언의 어간	높푸르다, 굶주리다, 오르내리다

③ 파생어의 유형

접두 파생어	어근의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 예 참뚱, 헛꿈, 된엿다
접미 파생어	어근의 뒤에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 예 어른스럽다, 잠꾸러기, 구경꾼

● 새말

① 새말의 개념과 가치

개념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말
가치	• 우리말의 뛰어난 생산성을 보여 줌. • 사회의 변화 양상과 언중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음.

② 새말을 만드는 방법

합성어 방식으로 만들기	꽃미남(꽃+미남), 노래방(노래+방)
파생어 방식으로 만들기	대인배(대인+-배), 누리꾼(누리+-꾼)
머리글자의 결합	개취(개인의 취향), 깜놀(깜짝 놀라다)
단어의 일부 결합	캠맹(컴퓨터+맹), 득템(得+아이템)

■ 단어의 의미 관계

● 단어의 의미 관계

① 유의 관계

개념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을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러한 단어들을 '유의어'라고 함. 예 가끔-더러-이따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는 비슷하지만 쓰이는 상황과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음. • 유의어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활용하면 다채롭고 풍부한 의미 표현이 가능함.

② 반의 관계

개념	서로 의미가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단어들을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러한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함. 예 소년-소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하나의 의미 자질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자질들은 모두 공통됨. •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단어들이 반의어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음. 예 '땅'의 반의어: '하늘', '바다' 등

③ 상하 관계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개의 단어 중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 예 동물-개 •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고 함.
특징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하의어일수록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님.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① 동음이의어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 • 상호 의미 관련성이 크지 않음.
예	배: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腹] / 과일의 하나[梨] / 교통수단[船]

② 다의어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 같은 어원에서 나와 뜻이 분화되면서 여러 의미를 갖게 된 것이므로, 의미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
예	손: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중심적 의미) / 힘이나 노력(주변적 의미)

광성고등학교 (서울)

1. <조건>을 참고하여 <보기1>과 <보기2>의 빈 칸을 채우시오.

<보기1>
단어들 가운데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들을 묶어서 분류해 놓은 갈래를 (㉠)이라고 한다. 이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 (㉢), (㉣)이 그것이다.

<보기2>
Table with 3 columns: (㉠), (㉡), (㉢). Rows include 불변어 and (㉣) with sub-rows for (㉤), (㉥), (㉦), (㉧), (㉨), (㉩), (㉪), (㉫), (㉬), (㉭), (㉮).

<조건>
• <보기1>의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각각 한 단어로 적을 것.
• <보기1>의 ㉠~㉣에 들어간 말을 고려하여 <보기2>의 ㉤~㉮까지 들어갈 적절한 말을 각각 한 단어로 적을 것.
• ㉤, ㉥, ㉦ / ㉧, ㉨ / ㉩, ㉪, ㉫ / ㉬, ㉭, ㉮ 사이에는 일정한 순서가 없음.

광성고등학교 (서울)

2. 다음 <보기>의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분석했을 때 각각의 개수로 적절한 것은?

<보기>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화를 덮는다.

Table with 2 columns: 단어, 형태소. Rows 1-5 with options 23, 24, 25, 25, 26 and 30, 31, 32, 33, 33.

광성고등학교 (서울)

3. <보기>의 대화를 보고, ㉠과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성원 : 선생님, 저는 형태소를 분류하는 것이 늘 어려워요. 형태소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 성원이가 형태소를 분류하는 기준이 헛갈리는 모양이구나. 그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까?

-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 자립 형태소: 혼자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 의존 형태소: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
• 실질적인 뜻의 유무에 따라
㉢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구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 형식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 의미만을 표시하는 형태소

성원 : 아,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선생님 : 그럼 아래의 문장을 형태소를 분석해볼래?
“단풍이 지는 계절, 가을이 왔다!”
성원 : 위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 실질 형태소는 ㉡입니다.
선생님 : 성원이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구나.
*단, 한자어는 음절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지 않을 것.

Table with 3 columns: , ㉠, ㉡. Rows ㉠, ㉡, ㉢, ㉣, ㉤, ㉥ with various combinations of 단풍, 이, 지, 는, 계절, 가을, 이, 왔, 다, 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광성고등학교 (서울)

4. <보기>의 (가)와 (나)의 밑줄 친 단어들 공통으로 가지는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 네 말이 맞는지 꼼꼼하게 들어 보았어.
 •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꿈인가 싶어.

(나)
 • 먹을 것 좀 줄래?
 • 내일은 일찍 일어날 수도 있어.

- ① 문장 내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② 문장 내의 다른 요소에 의존적으로 사용한다.
- ③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준다.
- ④ 부사어의 수식을 주로 받는다.
- ⑤ 어미가 결합할 수 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5. <보기>를 바탕으로 문장의 품사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권남훈이라고 합니다. 품사 단원을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아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왜죠?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 ㉠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의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답변 :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예요. 학생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 뒤에 조사와 결합하기 때문에 대명사지만, ㉡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입니다. 이처럼 형태가 같은 단어라도,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품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었나요?

- ① '학생들이 일곱 명이나 오지 않았다.'에서 '일곱'의 품사는 ㉠과 같다.
- ② '거기가 어디입니까?'에서 '거기'의 품사는 ㉡과 같다.
- ③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에서 '만큼'의 품사는 ㉠과 같고, '저런 일이 생기니 놀랍다'에서 '저런'의 품사는 ㉡과 같다.
- ④ '어제가 우리의 1일이다.', '누나가 어제 미국으로 떠났다.'에서 '어제'는 모두 같은 품사이다.
- 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으로 나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에서 '꿈'은 모두 같은 품사이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6. 다음 <보기>의 글을 읽고 용언의 '어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고르면?

<보기>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 어미는 자립성과 실질적 의미가 없지만 이들이 맡은 문법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어미는 문장의 종결과 연결이라는 기능을 결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보태기도 한다. 어미에는 그 어미로써 한 단어가 끝나는 어말 어미와 그 뒤에 반드시 다른 어미가 와야만 하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 '뛰겠다. 뛰겠고'에서 가장 끝에 있는 '-다, -고'는 어말 어미이며, 어간 '뛰-'와 어말 어미 '-다, -고' 사이의 '-겠-'은 선어말 어미이다.

- ① 은지 :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이군.
- ② 해리 : 문장의 연결을 결정하는 어미는 선어말 어미이군.
- ③ 혜수 : '어제 다 끝났겠다.'에는 선어말 어미가 두 개 쓰였네.
- ④ 다은 : '아버지께서는 키가 크시다.'에서 '-시-'는 선어말 어미겠네.
- ⑤ 미정 : '지금 꽃무릇이 한창이겠다.'에서 '-겠-'은 선어말 어미겠네.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7. 품사 분류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태는 단어의 형태 변화 여부를 말한다.
- ② 의미는 개별 단어가 갖는 차별적인 의미를 말한다.
- ③ 기능은 한 단어가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와 맺는 문법적 관계를 말한다.
- ④ 품사는 단어들 가운데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들을 묶어서 분류해 놓은 갈래를 말한다.
- ⑤ 형태에 따라 2가지, 기능에 따라 5가지, 의미에 따라 9가지로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그는 ㉡바로 ㉢앉아 버렸다.
 • 날 알아주는 ㉢분은 선생님㉣뿐이다.

- ① ㉠은 지시관형사로 수식언어이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② ㉡은 부사로 뒤의 '앉아 버렸다'를 수식한다.
- ③ ㉢은 동사로 분용언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은 인칭대명사로 주로 조사와 결합한다.
- ⑤ ㉣은 의존명사로 주로 체언과 결합한다.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9. <보기>의 ㉠와 밑줄 친 단어를 비교했을 때, 그 기능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언어와 매체㉠는 열심히 배워야 한다.

- ① 영희가 사과 두 개를 샀다.
- ② 철수가 가져온 것은 책이다.
- ③ 이 마을에서 대통령까지 나왔다.
- ④ 철수가 우리 집 고양이를 불렀다.
- ⑤ 여름에는 수박과 참외를 먹을 수 있다.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10. <보기> 중 동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이 가능하다.
 ㄴ. 형용사와 달리 모두 규칙적으로 활용된다.
 ㄷ. 종결 어미 '-는다/-니다'와 결합이 가능하다.
 ㄹ.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또는 성질을 나타낸다.
 ㅁ.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와 결합이 불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ㄱ, ㄷ, ㅁ
- ⑤ ㄷ, ㄹ, ㅁ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11. <보기>의 문장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① '내가'에는 형식 형태소가 두 개 있다.
- ② '주었을 때'에는 의존 형태소가 두 개 있다.
- ③ '그의 이름을'은 실질 형태소가 두 개 있다.
- ④ '꽃이 되었다.'는 자립 형태소가 두 개 있다.
- ⑤ '나에게로'는 총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었다.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12. <보기>의 ㉠~㉣ 중, 단어의 형성 방법에 따른 단어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가장 다른 것은?

<보기>

동생이 ㉠흰옷만 있어서 엄마가 ㉡바느질을 했다. 동생은 ㉢새파란 천을 가져와서 검은 천에 ㉣덧붙이자고 했지만, 엄마는 흰색이 더 좋다고 하얗게 만들었다. 동생은 흰색이 얼룩이 잘 안 진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 ① ㉠ ② ㉡
- ③ ㉢ ④ ㉣
- ⑤ ㉤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13. <보기>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영수 : '새롭다'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 철희 : '꽃사과'의 '꽃-'은 '덜 익은'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 영철 :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 태영 : 어근에 접사가 결합해서 합성어가 만들어지며 '맨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민성 : 어근은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가운데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말하며 체언에서만 찾을 수 있다.

- ① ㉠, ㉡ ② ㉠, ㉣
- ③ ㉢, ㉣ ④ ㉠, ㉡, ㉣
- ⑤ ㉢, ㉣, ㉤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14. 단어 형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굳은살'은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꾸며 준다.
- ② '구멍가게'는 어근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 경우이다.
- ③ '굳말'의 '굳-'은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고 특정한 뜻을 더해 준다.
- ④ '피보'의 접사 '피-'는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며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 ⑤ '여닫다'는 어근이 원래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대등하게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전체 정답>>

1-(1) 언어와 국어

1.② 2.④ 3.③ 4.④ 5.⑤ 6.① 7.③ 8.① 9.③ 10.③
11.① 12.② 13.④ 14.④ 15.⑤ 16.② 17.③ 18.⑤ 19.
② 20.⑤ 21.㉠ 된소리 ㉡ 마찰음 ㉢ 스프링 22.③
23.④ 24.① 25.④ 26.(A)는 사물의 이름에 따라 같은
그림을 다르게 기억해 그렸기 때문에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B)는 '배고프다'는 정보 때문에
'먹었다'라고 연상하여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7.③ 28.언어는 그 언어
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정신, 곧 문화를 반영한
다. 29.② 30.③

1-(2) 매체의 유형과 매체 언어

1.⑤ 2.① 3.② 4.④ 5.③ 6.④ 7.③ 8.② 9.② 10.③
11.㉠은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사진, 그림 등의 시각
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인쇄 매체이고, ㉡은 소리, 음
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영
상 매체이다. 12.대상의 얼굴 부분을 크게 클로즈업
하여 표정이 잘 나타나게 연출한다. 13.③ 14.⑤ 15.
① 16.④

2-(1) 음운

1.③ 2.② 3.① 4.① 5.⑤ 6.① 7.③ 8.⑤ 9.① 10.④
11.④ 12.③ 13.⑤ 14.1) ㉠ 끝받음 ㉡ 끝받음 ㉢ 음절 끝
소리 규칙 ㉣ 'ㄴ'첨가 ㉤ 비음화 2) 홀이불, 부역일
15.③ 16.② 17.③ 18.⑤ 19.⑤ 20.④ 21.㉠ 닥짱에는
가빈는 달기 만타. ㉡ 엽짱 밤만 마덱따. 22.㉠ 반니
랑, ㉡ '이랑'이 실질형태소이기 때문이다. 23.① 24.
② 25.③ 26.④ 27.② 28.④ 29.⑤ 30.③ 31.① 32.㉠
의, 에 ㉡ 의, 에 ㉢ 의 ㉣ 의 ㉤ 의, 이 33.① 34.②
35.③ 36.④ 37.⑤ 38.④ 39.③ 40.③ 41.⑤ 42.② 43.
④ 44.① 45.② 46.희한한, 잠가, 아기가, 붙이고 47.
⑤ 48.㉠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열녀선 ㉢ 유음화
49.③ 50.① 51.② 52.③ 53.② 54. ① 55.④ 56.② 57.
⑤ 58.③ 59.④ 60.② 61.① 62.④ 63.㉠ ㄴ첨가 ㉡
비음화, 꽃잎, 색연필 64.① 65.② 66.④ 67.④ 68.①
69.② 70.⑤ 71.② 72.윙고[윙꼬]는 자음군 단순화, 음
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73.⑤ 74.
② 75.① 76.④ 77.⑤ 78.④ 79.② 80.㉠ '물놀이'는
[물로리]로 발음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유음화이다. ㉡ '꽃잎'은 [꼰잎]→[꼰닙]→[꼰닙]으로
발음되는데, 이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음절 끝소
리 규칙과 'ㄴ'첨가, 비음화이다. ㉢ '들었다'는 [드려

다]→[드려따]로 발음되는데, 이 때 일어나는 음운 변
동은 음절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이다. 81.② 83.
② 84.② 85.④ 86.② 87.⑤ 88.④ 89.⑤ 90.④ 91.⑤
92.① 93.② 94.④ 95.⑤ 96.④ 97.② 98.② 99.①
100.③ 101.② 102.⑤ 103.① 104.② 105.④ 106.⑤
107.③ 108.④ 109.(가) 우리말에서는 유성음과 무성
음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p]와 [b]를 같은 음운으로
인식한다. (나) 우리말에서는 [r]과 [l]을 같은 음운
'ㄹ'로 인식한다. 110.⑤ 111.③ 112.② 113.⑤ 114.
① 115.㉠은 제10항과 제14항에 근거하여 [갑씨]로
발음한다. ㉡는 제10항과 제15항에 근거하여 [너겁
따]로 발음한다. ㉢는 제11항과 제15항에 근거하여
[다가페]로 발음한다. 116.④ 117.A: 발음 기관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B: 발음 기관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118.③ 119.④ 120.① 121.① 122.⑤
123.② 124.③ 125.②⑤ 126.④ 127.③ 128.④ 129.③
130.①② 131.④ 132.④ 133.② 134.① 135.② 136.㉠
있습니다, [있습니다]→[인습니다]→[인씀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비음화 ㉡ 듯합니다, [듯합
니다]→[듯합니다]→[드탐니다]→[드탐니다], 음절의 끝
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 비음화 ㉢ 까마득한, [까마
득한]→[까마드칸], 거센소리되기 ㉣ 차, '차아→차',
'ㅏ' 탈락 137.③ 138.③ 139.③ 140.⑤ 141.③ 142.①
143.② 144.④ 145.⑤

2-(2) 단어

1.㉠ 품사 ㉡ 형태 ㉢ 기능 ㉣ 의미 ㉤ 가변어 ㉥ 체
언 ㉦ 수식언 ㉧ 독립언 ㉨ 관계언 ㉩ 용언 ㉪ 명사
㉫ 대명사 ㉬ 수사 ㉭ 관형사 ㉮ 부사 ㉯ 감탄사 ㉺ 동사
㉻ 형용사 2.② 3.⑤ 4.② 5.⑤ 6.② 7.② 8.②
9.③ 10.② 11.③ 12.① 13.① 14.④ 15.⑤ 16.새, 신
발, 을, 더, 빨리, 수 17.① 18.⑤ 19.① 20.① 21.②
22.③ 23.㉠ -거라, -어라, -아라 ㉡ 그림거라 ㉢ 불가
능 ㉣ 형용사 ㉤ -자 ㉥ 행복하자 ㉦ 불가능 ㉧ 형
용사 24.① 25.② 26.(1) 마소 (2) 병렬적 합성어로 볼
수도 있고, 융합적 합성어로 볼 수도 있는 것은 '돌
아가다'이며, '돌아가다'는 돌아서 가다는 뜻으로 쓰
일 경우 병렬적 합성어이지만, '죽다'라는 의미로 쓰
일 경우 융합적 합성어이다. 27.③ 28.(1) ㉠ 수사 ㉡
관형사 (2) ㉢ 언니, 옷 ㉣ 가, 에서, 을 (3) 불변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고, 가변어는 활용을 하여 단어의
형태가 변한다. 29.③ 30.④ 31.① 32.④ 33.② 34.④
35.⑤ 36.⑤ 37.단어: 맑은, 하늘, 에, 갑자기, 비구름,